



# ‘유령 연구원’ 만들어 인건비 가로챈 교수

### A교수, 인건비 챙기려 제자들 연구원 허위 등록 2018년부터 5년동안 월세 4400여만원 부당 수령 제자들, 우월적 지위 눌러 잘못 알아도 거절 못해 A교수 “잘못 인정”... 학교 측에 보직 사퇴 밝혀

제주지역에서 국립대학교 교수가 제자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수년간 인건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된 제자들은 잘못인 줄 알고 있었지만 교수의 우월적 지위에 눌러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본보는 최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제주대학교 해양스포츠센터(이하 센터)의 비리 의혹이 담긴 문건을 입수했다. 센터는 해양스포츠 분야 교육·연구를 위해 2009년 12월 설립된 제주대 산하 기관으로, 모 학교 A교수가 2017년부터 센터장을 맡고 있다. 문건에는 센터가 2018년부터 올해 11월까지 ‘해양구조물관리 취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센터 내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

내역이 나와 있다. 해양구조물관리 취업 지원사업은 산업잠수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작됐다. 제주도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고, 제주도와 협약을 맺은 센터가 인력 양성과 취업 연계를 담당했다. 이 사업의 연구책임자는 센터장인 A교수다. 지금까지 이 사업에는 4억90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이중 일부가 연구원 인건비로 쓰였다. 센터가 사업 참여 연구원을 ‘등록’해 제출하면 제주도는 연구원의 개인계좌로 인건비를 지급했다. 문건을 작성한 익명의 제보자는 등록된 연구원이 실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유령 연구원’이라고 주장했다. 문건에는 제주도가 그동안 연구원 5명에게 한달에 적게는 51

만여원에서 많게는 170만원까지 총 44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됐다. 본보는 문건에 나온 연구원 이름과 금액대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주도에 대조를 요청한 결과 보조금 정산보고서와 문건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답변을 얻었다. 문건에 기재된 연구원들 중 일부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연구원으로 이름이 올라갔으며 허위 등록을 시인했다. 이들은 당시 제주대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던 대학원생으로 A교수의 지도를 받았다. B씨는 “A교수가 연구원으로 등록할 수 있게 이름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며 “인건비를 지급 받으면 전부 현금으로 인출해 교수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C씨는 부당한 일인 줄 알고 있었지만 차마 A교수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했다. C씨는 “사실상 졸업을 시켜주는 게 담당교수인데, 교수가 부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졸업을 해야 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거부하기 힘들다”며 “또 학과가 워낙

폐쇄적인 분위기이다보니 부당한 일을 당해도 외부에 말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전했다. A교수는 제기된 의혹을 모두 인정했다. A교수는 7일 본보와 만난 자리에서 “잘못을 인정한다”며 “제자들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제자들을 상대로 강요나 협박은 없었다고도 했다. 다만 A교수는 자신이 해양구조물관리 취업 지원 사업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대학 측이 애초 협약을 맺을 때 책임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은 문제와 대학 규정상으로도 인건비를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제자들을 인건비 부당 수령에 동원할 것이 아니라 협약을 수정해 책임연구자 인건비를 책정하는 방법에 대해선 고려해보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선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다”며 “후회스럽다”고 고개를 떨궜다. 한편 A교수는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이날 학교 측에 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의사 명의 빌린 ‘사무장 병원’ 적발

### 치과위생사 등 4명 입건 로 6000만원을 청구해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 나이가 많아 병원 운영이 어려워진 치과의사 B씨에게 매달 600여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의사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이미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원해 추가로 개원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과잉 진료 등 수익 증대에 몰두하면서 환자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해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 “개발사업 심의 뒤 의견 수렴 풀염치”

### 참여환경연대 비판 성명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제주 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이미 사업 기간 연장을 허가한 마당에 제주도가 도민과 전문가를 상대로 이들 중 일부 사업에 대해 뒤늦게 의견 수렴을 나서자 시민단체가 “풀염치하다”고 비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7일 발표한 성명에서 “오영훈 제주도정은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십년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세금만 감면받던 사업의 기간을 연장해준 것도 모자라 위원회 개최 전에 수행했

# ‘선석난’ 제주항 내년부터 크루즈·내항선 동시 이용

제주항 선석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크루즈 선석을 내항선과 크루즈선이 동시에 이용한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항의 선석은 모두 29개(어항구 4개·상항구 25개)지만 이용항로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6개에서 올해 9개로, 여객선은 2019년 9척에서 올해 11척으로 증가하면서 상당수 선박들이 고정선석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부정기적으로 오가는 화물선과 유조선 등도 수십 척에 달해 제주항에는 매일 ‘정박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영훈 지사는 지난 7월 제주외항 국제크루즈선 선석 1개를 여객선 또는 화물선 등 내항선 선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고병원성 시 차단 방역 최전선인 타 지역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7일 제주 최대 철새도래지인 제주시 구좌읍 하도철새도래지에서 방역당국이 선제적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4월 마무리된 ‘제주항 선석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에서 제주 연구원도 크루즈 부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관세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초부터 크루즈 선석(81번)을 크루즈와 내항선이 번갈아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크루즈 선석 2개 중 1개를 내항선에 내주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내년부터 크루즈 입항이 확정되면서 동시 이용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위영서기자 yswi1968@ihalla.com

##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 마늘·더덕 씹음병, 균핵병 예방
-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 연작장애 토양 속독 살균
-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 토양 공팡이성 질병의 방제
-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 뿌리혹병의 경감

▶ YouTube ▶ 석회질소 ▶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 Tel: 745-8900, H.P: 010-9258-7508

## 감귤묘목 분양

- 천혜향 2, 5년생
- 하례조생 4년생
- 레드향 2, 3년생
- 한라봉 2, 3년생
- 유라조생 2, 3년생
- 유라실생 4, 5년생
- 하굴 4, 5년생
- 궁천 3, 5년생
- 레몬 4년생
- 황금향 2년생
- 그외 다수품종

### 제일종묘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789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6호

연락처 010-2699-2355  
010-3694-2290

## 우량 감귤묘목

종자업등록번호 제18-서귀포-2021-20-02호

### 우수한 품질의 감귤묘목만 생산하여 직접 판매합니다

레드향 · 천혜향 · 황금향  
한라봉 · 궁천  
오하라베니 · 조경용 하굴

※ 현장방문 환영 ※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동로 268-168

### 제주감귤묘목영농조합법인

# 010.7204.1286